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대림 시기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루카 21,28)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2/ 1(일) 대림 제 1 주일(본당 11:00, 공소 17:30)
※성수 예식(67 번)과 축일자 축하 특송(528 번)이 있습니다.

▶12/ 3(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본당 20:00)

▶12/ 5(목) 대림 제 1 주간 목요일 미사, 성시간 (본당 19:00)

▶12/ 7(토) 성모신심미사(본당 11:00)

▶12/ 8(일) 대림 제 2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2025 사목회장 선출

퇴장시 복도에 준비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묵상집

대림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인별로 소지하시고 정성스럽게 대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림 시기부터 미사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비송 (306 번) 대영광송(307 번) ※(대림시기(X), 사순시기(X))

거룩하시도다 (308 번) 하느님의 어린 양 (309 번) 아멘(379 번)

◎2025 달력

각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찾습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구역장 월례회의 ▶오늘 미사 후 친교 식사 전 대철실

◎성탄 전야및 성탄 대축일 미사 전례연습

▶일시: 12/10(화) 미사후 대철실

전례분과와 해설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 매일미사

매일미사 책 대금 \$55/년을 12/8(일까지 각 구역장들에게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은 수금을 하여 재정분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달력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별 달력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판공 성사

▶일시 12/19(목) 18:00 ~

해당 구역장님으로부터 성사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금일 간식은 김명숙 헬레나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공소 판공성사(12/8, 12/15, 12/22) 미사 시작 30 분전

▶12 월 공소 세례 축일자 1 명 12/20 에리카(맹선민)

단체 소식

◎은빛 모임

▶친교식사 후 친교실 – 율동을 배워봅시다

◎레지오

▶12/7(토) 미사 후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12/8(일) 미사 후 꾸리아 회합

구역모임(소식)

▶

친교 식사

12/ 1: 1 구역(소고기 배추 된장국, \$5/\$3)

12/ 8: 2 구역 12/15: 3 구역 12/22: 4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6 명)			
주일헌금	\$1440	교무금	\$6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10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성모회 \$50 (이인선 켄마)

\$1,000 (익명)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웸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2 월 본당 세례 축일자 (29 명)

12/ 1 세라피나 (박채원)

12/ 3 루치오(김태훈)

12/ 5 스테파노(최우중)

12/ 9 발레리아(김나경)

12/10 율리아(우경숙)

12/12 유스티노(김재현)

12/13 루시아(이혜영, 홍예원, 조혜자, 이민아, 조인순)

12/16 아델라이드(김단비)

12/24 일미나(김진희)

12/25 아나스타시아(김시현), 노엘(라)(이우성, 김정유)

12/26 스테파니(정혜자), 스테파노(민중환, 최두원)

크리스티나(이순옥)

12/27 사도요한(황유진, 이관휘, 권병학, 이용원, 이준서, 하재석, 최정훈)

12/31 바울리나(민옥희)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 1	김성수 베드로	최아현 베로니카 송찬 아론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한옥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이인선 켄마 박규혜 카타리나
12/ 8	박규혜 카타리나	이지민 이사벨라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한옥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12/15	권희진 요안나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늘 깨어 기도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실천합시다.

교정사목 담당
강병규 야고보 신부

언젠가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보호자께서, 환자가 인생의 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병자성사를 청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당부의 말을 곁들였습니다. 과연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환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희망은 남아 있으니, 삶에 대한 희망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환우분의 어두웠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음을 준비시키려 사제인 저를 이곳에 보낸것이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라고 보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공포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행에 적금을 들 듯이,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고통을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아파할테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닐지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서 세상의 끝날 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현실에서 마주치는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때 교회에는 위기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직 살만한 것이 아닐지 하고 생각합니다. 감옥 같은 죄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굶주린 행려자들을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돈이 없어 걱정하는 아픈 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해 주는 이들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재능을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교회에는 많이들 계시니까요

하느님을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죽음위의 영광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쓰는 그런 가짜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이의 아픔에 함께 위로하며, 고통과 번외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이는 업신여기고, 가난한 이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프지만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눌 줄 아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날에도 사랑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실천합시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대림 1 주일 (2024. 12. 1.)

제 1 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33,14-16
화답송 시편 25(24),4-5 ㄱ, 8-9.10 과 14(◎ 1)



후렴.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 나 이 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 서 말씀입니다.3,12-4,2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1,25-28.34-36